



전북도가 3.1절 연휴기간 중에 도내 각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행사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관을 운영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 총력

전북도, 주요행사장 홍보관 운영... 온·오프라인 동시 홍보로 범국민적 관심 유도

전북도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전국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도내 홍보를 넘어, 온오프라인 전국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지난 1일 전북도에 따르면 3.1절 연휴기간 중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행사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관을 운영, 금년 오프라인 대국민 홍보의 본격 착수를 알렸다. 특히 3.1절 연휴기간 중 운영된 홍보관에서는 2023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홍보와 함께 스카우트 용품 장구류 등을 전시하여 세계잼버리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잼버리 즉석 사진 찍기, 다크&플랫 이

벤트, 팔씨름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남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도는 이번 연휴기간 홍보관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대표축제는 물론, 전국소년체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전라북도 과학축전, 그린웨이 환경축제, 지방자치박람회 등 도내의 주요행사에서도 특색 있는 잼버리 홍보관을 운영하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각인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페이스북 운영, 카드뉴스 제작·배포, 계절별 이벤트 영상 게시 등 온라인을 통한 잼버리 알리기를 한

층 강화하고 수도권 지하철 역사 조명광고, KTX 객차 모니터, 전광판, 지상파 및 케이블 TV 홍보를 시작하여 도내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전국 범주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는 169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전북도와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면서 "2023년까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잼버리 성공개최와 함께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북 대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폭 넓은 정보 제공으로 산업 진흥과 지역발전의 활로 찾는다

전북도, 도내 기업·연구기관 대상 과기부 R&D 사업 설명회 가져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부서들을 초청해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과기부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발 고용불안, 청년 실업을 악화 등 인구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 수요 기반의 R&D가 요구되고 있어 정부 부처 R&D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들에게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해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발전의 활로를 찾고자 마련됐다.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R&D 사업 내용은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드론, 차세대 이동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 등 13개 혁신성장 동력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사업과 먹거리, 질병, 환경, 안전, 자연재해, 생활화학물질, 교통, 건설, 사이버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과 관련돼 제품·서비스 창출이 가

능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 지원사업, 기상 관측, 실종자 수색, 대기오염물질 측정, 해양환경 측정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무인 이동체 분야인 공공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등이다. 안전, 환경, 교통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R&D에 대해서는 실증·인증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주도로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하고, 우수 R&D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연계해 우수물품 조달등록을 지원해 초기 판로 확보까지 지원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탄소기업 사업화 견인에 박차

전북도, 탄소제품 민간보급 등 신규사업 발굴·추진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탄소응용제품의 사업화 및 대중화를 위해 '탄소산업 활성화 기술사업화(T2B)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탄소기업이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인증 특허, 홍보 디자인, 국내박람회 참가, 민간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투입해 도내 탄소기

업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도내 탄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도내 탄소기업의 상용화 제품 개발에 대한 애로를 해소해 주교자 신규 사업으로 시제품제작 및 공정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탄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홍보 및 디자인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을 추진하고, 기 구축

된 오프라인(기술) 시연장을 활용하여 도내 탄소기업의 기술 구현과 개발제품에 적용되는 과정을 공감각적으로 시연하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홍보, 교류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기업의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탄소기업협의회에서 지정한 탄소기업 중 우수 탄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임노숙 전북도 탄소산업과장은 "기술사업화(T2B) 지원사업은 도내 탄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이고, 추후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탄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내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양식장 예찰 실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생물 질병이 빈번히 발생되어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진단과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수산질병관리사 1명을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질병의 조사와 연구,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방역조치, 수산생물의 보건검진과 환경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공수산질

병관리사의 운영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정읍시 신태인 소재의 제일수산질병관리원 대표 김병관으로 2013년도에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운영 하는 등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이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매월 10회 이상(최소 20여가 이상) 현장예찰을 통하여 전염병 피해 예방과 신속진단(처방전 발급 등)을 할 계획이며,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조치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약품감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그동안 양질의 수산질병 및 양식관리를 받지 못한 영세한 도내 양식어가는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어업인들의 만족도 및 호응도가 높을 경우 2020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전염병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수산생물 질병 전문인력 수산질병관리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질병 진단과 대처로 양식어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실효성 있는 국가비상대비계획 수립 '분주'

오늘부터 동원자원조사 실시

전북도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중점관리대상인 300여개 업체에 대해 '2019년 동원자원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동원자원조사에 앞서 자원조사 내실화 및 조사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공무원 및 군부대 요원 등 250여명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동원자원조사는 전시에 소요되는 인

력과 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능력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국가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를 통해 파악된 동원능력은 총무계획 등 국가비상대비계획의 기초자료가 된다. 올해는 정확한 동원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방문조사 대상을 전체 대상업체 중 90% 이상으로 확대·실시하여 기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임무수행능력 확인 및 동원잠재능력을 보유

한 우수한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방산업체, 장비제조업체, 가스·전력시설복구업체, 자동차·건설기계제조업체, 의료기관 등 42개 업종이며, 동원자원 관리 주무부·처와 전북도 및 군부대 조사요원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2019년 동원자원조사가 국가 비상대비 업무의 기초가 되는 만큼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유튜브 정치인' 모금법 위반 소지... 선관위, 공문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에게 실시간 모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과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후원

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인에게 보내는 금전이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 홍카메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마치 TV홍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저는 TV홍카메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면서 "나는 단 한 푼도 수익을 받지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초창기 홍카메라에서 돈이 후원되는 모습이 있어서 잠시 중단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면서 "홍카메라 측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 할 것 같다"고 했다. /뉴스

분묘이장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산 38-6번지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최종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무연 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유연 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묘지기수: 8기, 추후에 발견된 묘지는 공고에 갈음합니다
6. 안치장소: 전주하늘정원추모관(063-221-7185)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처: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306 햇빛찬아파트 101동 403호
황해자(010-3659-0975), 김용모(010-3654-4448)
9. 신고방법: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해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